



古書의 分類問題 (下)

千 惠 鳳

四. 現在 우리의 古書分類는 어떠한 여야 할것인가?

現在 우리나라에서 古書整理에 採用되고 있는 分類法도 多樣性을 띠고 있다. 이를 整理하여 보면 (1) 二個分類法에 依한 新古書(東書)併行制 (2) 單一分類法에 依한 新古書(東書)混合制 (3) 單一分類法에 依한 東西書統一制의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다음에 이 個個의 體制에 對하여 그 內容을 檢討하고 意見을 敷衍하므로써 우리에게 多少라도 參考가 될만한 方案을 模索하려 한다.

1. 二個分類法에 依한 新古書(東書)併行制.

이것은 古書의 分類를 四部法 또는 獨自案에 依하고, 新書는 K. D. C. 또는 K. D. C., N. D. C. 中國分類法 등을 參考로 하여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 의 新分類法에 依하고 있는 것이다. (註 1) 四部法에 依한 古書分類에 있어서는 위에서 이미 그 短點을 指摘한 바 있음으로 이에서는 再論을 하지 않겠으며 主로 古書와 新書를 이와같이 各各 個別的인 分類法을 使用하여 併行分類를 하는데에는 어떠한 弊端이 있는가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言及하려 한다.

圖書의 分類란 圖書館의 重要한 職能이며 이는 各種의 圖書館資料를 그 主題의 同一한 것과 同一치 않은 것에 따라 나누

고 모아 一定한 體系로 組織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圖書를 分類하는 窮極의 目的은 圖書館 資料의 利用을 便利토록 함에 있다. 어떤 讀者이든 間에 어떠한 主題의 圖書를 찾으려 書架에 接할때나 또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主用되고 있는 分類目錄을 檢索할때도 大概 그 主題와 類似한 圖書가 또 있는지 與否에 興味를 갖고 찾는 것이 普通이다. 이때 同一한 主題의 圖書를 言語와 文字에 拘碍치 않고 한곳에 集中 排列하였다면 얼마나 손쉽게 資料를 利用할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漢文으로된 古書라면 덮어 놓고 一般圖書와는 달리 別個의 分類法을 使用하여 排列도 따로하고 目錄組織도 따로하려는 傾向이 濃厚한듯하다. 勿論 圖書排列에 있어서 一般圖書도 그중 大型인것 또는 特殊裝釘을 別途로 排列하듯이 古書에 있어서 東裝인것은 別途排列을 하고있지만 그렇다고해서 分類까지 新書와 古書를 各各 다르게 하여야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分類法이 서로 다르면 分類 目錄까지도 따로 組織되게되고 또 同一한 主題이 면서도 古書와 新書의 分類記號가 서로 달라서 讀者가 圖書를 利用하는데 적지않은 混雜과 不便을 느낀다. 더욱이 古書의 量이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 新書를 分類할수 있는 分類法이라면 古書도 充分히 分類할수있음에도 不拘하고 구별어 또 하나의 分類體制를 가지려는것은

삼가야 할 問題가 아닐수없다. 萬一 이와 같이 얼마안되는 資料에 對해서 四部法이나 或은 獨自案 分類法과 같은 別個의 分類法을 使用하는 底意가 古書의 內容이 漢文이여서 取扱하기가 까다로운 關係로 보다도 簡易한 方法을 採擇하려는데 있다는 것은 큰 矛盾이다. 왜냐하면 分類과 讀者의 資料利用의 便利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整理業務의 便宜를 爲主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問題의 解決策으로서 古書 新書를 어디까지나 單一分類法에 依해서 分類하는 方法을 擇하고 分類業務의 苦楚에 對해서는 經史子集의 四部法을, 採用하고 있는 新分類法으로 連結시켜주는 索引을 마련하여 그業務의 圓滑을 期하도록함이 좋을 줄로 안다.

圖書館學의 尖端을 걷고 있는 美國에 있어서도 國會圖書館은 漢書를 經史子集의 四部法으로 整理하고 있고 (註 2), 또 Harvard-Yenching(燕京) 圖書館 같은 곳에서도 그네들이 使用하고 있는 分類法과는 달리 東洋書籍만을 整理하기위한 分類表 (註 3)를 別途로 만드려 쓰고 있지않으나 하고 反問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에 있어서의 一般圖書館用의 分類法이 東洋에서 使用되고 있는 우리들의 分類法과 그組織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不得已한 現狀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詳言하면 그네들이 使用하고 있는 分類法은 西歐中心으로되어 東洋部分이 粗略하고 그렇다고해서 展開시킨다면 分類法組織上에 많은 變動이 생기게됨으로 少數國의 資料를 위하여 多大數國의 많은 資料整理에 支障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分類組織을 變動시킨다면 여러 圖書館이 既已 整理한 龐大한 藏書量을 再分類하여야하는 難點이 있는데 主因하지않나 生覺

된다. 또 그외에도 東洋에 있어서 韓國이나 日本은 自古로 巨大한 漢文文學의 影響을 받아 온 關係로 漢文學을 우리의 日常學問에서 멀야 될수없는 이른바 東洋共通의 學問이라고할 程度로 一般大衆과 不可分의 關聯性이 있음에 比하여 外國에서는 別로 密接한 關聯性이 없고 研究者와 利用者가 限定된 極少數인 點(註 4)을 아울러 參酌한다면 우리의 處地와 角度가 다르다는것을 깨닫게되며 따라 別로 異常하게 여겨질 問題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性質을 究明치않고 圖書館學이 先進된 나라의 方法이라해서 無條件 이를 그대로 踏襲할수는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言及할것은 이와같이 古書와 新書를 各各 別個의 分類法에 依해서 分類할때 이 兩者의 限界가 曖昧해서 이로 因하여 複雜한 問題가 隨伴된다는 點이다. 이 問題는 非但 우리 圖書館界뿐만 아니라 中國에 있어서도 新舊書를 別途分類法에 依해서 整理하고 있는 圖書館에서 겪고 있는 隘路이며 큰 缺點의 하나로 되어 있다. (註 5)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主로 裝釘으로서 標準을 삼고 있는것 같다. 圖書內容이 漢文 國文 日文的 如何를 不問하고 裝釘이 東裝이면 古書로 看做하고 洋裝이면 新書로 分類하여 排列하는것이 一般的인 傾向인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實質上 아무런 意義가 없고 매우 模糊하다. 그理由는 다음과 같다.

(1) 裝釘이 東裝이라해서 만드서 實質上的 古書가 될수없다. 그것은 現代人이 著述한것도 있고 古代人이 著述한것도 있어 出版年紀에 何等の 基準이 없다.

(2) 同一한 言語와 文字로된 同一한 主題이면서도 裝釘에 따라 하나는 四部法等으로 또 다른것은 新分類法으로 分離되어

버린다. 그 좋은 例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같이 東裝의 古書를 景印하여 洋裝本으로 發行할때 이러나는 現象이다.

그래서 어떤 圖書館에서는 洋裝本中 그 圖書에 쓰여진 文字가 漢文이면 古書로서 取扱하기도 한다. 이때는 두가지 境遇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元來 東裝으로된 古書를 景印 또는 그대로 印刷하여 만든 洋裝本 漢文圖書이고, 또 다른 하나는 現代人이 著述한 洋裝本 漢文圖書인 境遇이다. 그런데 前者에 있어서 東裝으로된 古書는 반드시 漢文으로된 圖書뿐만이 아니고, 國文 또는 日文으로된 것도 있는데 漢文으로된 洋裝本만 古書로 取扱한다면 國文 또는 日文의 古書를 景印 또는 印刷發行한것은 어떻게 取扱할것인가? 後者に 있어서는 어째서 現代人이 著述한 洋裝本이 그內容이 漢文이라해서 古書가 될수 있는가? 또 現代人의 百話文도 文字가 亦是 漢字인데 이것도 古書로 取扱할것인가? 이와같이 新古書의 限界를 規定지워 주는 一定한 標準이 없어 매우 曖昧한것을 구태어 古書와 新書를 나누어 두개의 分類法을 使用할 必要가 없다. 이것은 다음 2의 古書排列에서 詳言 하겠지만 古書로서 別途取扱을 하지 말고 廣義의 東書로 單一分類法을 適用하여 分類하고 다만 排列에 있어서 그중 東裝으로된 特殊裝釘만을 管理上 一般圖書에서 分離시켜 別途排列하고, 分類目錄은 어디까지나 單一組織을 할수있도록함이 妥當할것으로 생각된다.

2. 單一分類法에 依한 新古書(東書) 混合制.

이것은 古書와 新書를 다 같이 K. D. C. 나 또는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의 單

一分類法을 使用하여 分類하는것을 말한다. (註 6) 兩分類法中 어느것을 採擇하느냐에 對해서는 圖書館의 性格과 種類에 따라 任意로 擇할수 있는 問題이지만 古書와 新書를 單一分類法으로 分類하여야 되겠다는 것만은 어떤 分類法을 使用하는데 다 같이 適用되어야 한다. 單一分類法을 使用한다거는 1의 二個分類法에 依한 併行制에서 列舉한바와 같은 短點을 解決할수 있을것으로 믿음으로 이에 對해서는 또 다시 言及하지않고 다만 그중 藏書의 排列問題만을 보다는도 具體的인 方法의 提示와 說明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여기서는 이問題를 中心으로 論하려 한다.

萬一 圖書의 利用이 分類에 있어서의 決定的인 要素가 된다면 우리는 藏書排列에 있어서 어떻게하면 効果의으로 이를 治할수있느냐하는 問題까지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古書에 있어서는 그裝釘이 區區함으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古書의 排列問題에 드러가기전에 먼저 圖書排列上의 原則을 紹介하고 다음에 本問題를 言及하려 한다.

mann은 圖書排列上의 諸要素를

『(1) 同一한 主題의 圖書를 함께 排列 한다. — 圖書가 相互關聯의으로 利用되도록 하기위해서는 함께 集中되어야 한다. 어떤 主題에 對하여 그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것을 다 알리고 願하는 사람은 많은 冊에서 自己의 要求에 가장 適合한 것을 選擇하려 한다. 이와같은 일은 書架에 가서 單一主題의 圖書를 다함께 찾지않으면안될 參考係員에게도 꼭 같다.

(2) 關聯된 圖書는 密接히 接近되어야 한다. — 萬一 圖書가 全部 書架上

의 關聯된 位置에 놓여 있다고 假定한다면 그것은 相互關聯될 수 있는 他圖書와 가까이 附해져 있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한 主題가 다른 主題에 들어 가게 됨으로 主類와 關係가 있는 關聯 主題가 뚜렷히 눈에 띄게 되며 따라 讀者는 한 主題에서 다음의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主題에 案内되어지는 것이다.

(3) 圖書를 이미 組織한 藏書內로 插入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 最近에 收入된 圖書는 類似한 다른 種類의 圖書와 함께 올바른 位置에 놓이도록함이 要求된다. 이는 卽 그 圖書가 올바른 2구루프에 插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書架의 排列이 伸縮性이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書架의 排列은 論理的인 順序를 破斷시킴이 없이 한 書架에서 다른 書架에로 連다라 移動되도록 하여야 한다. 位置가 固定되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相關的이어야 한다.

(4) 圖書에 그 冊 自體의 記號를 標識하여야 한다. — 이 記號는 圖書가 書架上的 關聯된 位置에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圖書에 주어져야 한다. 이 圖書自體의 記號는 請求番號와 貸出制度에 있어서와 같은 다른 圖書館職能에 對하여 多樣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이다.』(註 7)

라했으며 또 Herman은

『主題에 依해서 圖書를 排列하는 것이 基本的이고 當然한 分類이다. 그 圖書가 大型이든, 小型이든 興味가 있는 無味乾燥하든, 어느 때에 著述되었든 또 어떤 言語로 쓰여졌든 間에 同一한 主題라면 當然히 한곳에 모여지게 된다.

圖書館에 있어서는 大體로 이와 같은 方法으로 排列된 圖書와 其他資料를 檢索하는데 興味를 갖게 된다』(註 8)라고 했다.

위에서 우리는 書架上的 圖書排列이 圖書의 크기, 趣味, 內容國語 및 新舊圖書等に 拘碍됨이 없이 모든 圖書를 分類體系에 따라 同一한 主題는 이를 集中시키고 關聯된 主題는 이를 接近시키므로서 이루어 一連의 論理的인 體系라는 것을 알았다. 또 그리하여야만 讀者에게 最大限의 圖書利用을 期待할 수 있고, 圖書館員도 奉仕業務가 容易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는 原則問題이며 實際에 있어서는 各種의 資料를 다 같이 一連의 論理的인 體系로 排列할 수는 없다. mann이 分類의 定義를 내린 다음 特別히 圖書의 分類가 一般 分類의 概念과 다른 것은 『圖書의 物理的인 形態(Physical Form)에 依해서 必要한 調整이 加해진 知識의 分類』(註 9)라고 言及하고 있드시 圖書排列에는 內容(主題)의 要素 以外에 形態의 要素를 아울러 適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Folio와 같은 큰 圖書를 一般圖書와 함께 排列한다면 얼마되지 않는 이 大型圖書를 위하여 書架의 各間을 全部 크게 만들게 됨으로 不經濟的인 費用을 消費하며 또 圖書 以外의 資料等을 一般圖書와 함께 排列한다면 그 管理가 困難함으로 이를 別途로 排列하고 管理함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問題를 놓고 古書와 新書와의 排列의 實際的인 問題를 檢討해 보자 첫째의 方法은 가장 效果的인 排列이기는 하나 古書가 大部分이 東裝이라는 特殊裝釘이기 때문에 理論的인 排列이 容易치 않다. 그러나 經濟的인 事情이 許諾만 된다면 冊바인더(binder)를 適切히 만드

러 그안에다 冊을 끼어세울수 있게하므로서 一般圖書와 함께 排列할수는있다. 이와같이 東裝本인 古書를 冊바인더內에 끼고 세워서 排列하고 있는 곳으로 美國의 University of California East Asiatic Library를 들수있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도 東裝本이 얼마되지 않는 圖書館에서는 能히 할수있는 問題라고 본다. 둘째方法은 經濟的인 事情이 許諾되지않아 첫째方法을 實施치 못하는 圖書館에서 適用된다. 古書는 大體로 東裝書가 많아서 排列時에는 한 部帙 또는 같은 分類에 屬하는 冊을 適當한 量으로 누려 쌓아논채 排列하는 關係로 一般圖書와는 함께 排列할수 없으므로 別途로 排列하는 方法이다. 이方法은 一般圖書에서 大型圖書, 特殊한 裝釘으로된 資料를 分離시켜 別途 排列할때 Folia는 “Q”, 地圖는 “M”를 그資料와 카드의 分類番號에 덧붙여주듯이, 東裝本에 있어서도 東裝의 表示를 “O” (Oriental) 或은 “동”(東)等과 같은 글자를 選擇하여 分類記號에 붙이고 따로 排列하면된다. 그래서 筆者는 이렇게 整理排列되는 圖書를 「古書」라하지않고 「東書東裝本」또는 그냥 「東裝本」이라 부르고싶다. 이러한方法이 古書와 新書를 그裝釘에 따라 各各 다른 分類法에 依하여 整理하고 古書를 別途 排列한것과 一見 大同小異하지만 그러나 그概念과 性質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다르다. 위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古書의 概念이 裝釘에 依해서 明白히 이루어질수 없기때문에 그것은 嚴格한 意味에서 古書가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特殊裝釘에 依하여 排列된 一群에 不過하다. 또 二元的인 分類法을 使用할때는 分類目錄까지 別途의 體系를 갖게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않고 어디까지나 單一組織

이 되는것이다. 또한 이方法은 後에 經濟的인 事情이 許諾될때에는 冊바인더를 使用하여 언제나 單一排列을 할수있으나 分類法이 各各 다른것은 再分類를 하지않고서는 不可能한것이다.

3. 單一分類法에 依한 東西書統一制.

이것은 古書 新書 및 西書を 다 함께 K. D. C. 또는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 의 單一分類法을 使用하여 分類를 統一하는것을 말한다. 이分類方法은 開架式으로 運用하는 圖書館에서는 그種類와 性格의 如何를 莫論하고 絕對로 必要하다. 그리고 閉架式으로 運用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도 可能한限 이方法을 採擇하는것이 좋으며 특히 大學圖書館과 特殊圖書館인 境遇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어찌서 單一分類法으로 圖書館資料를 統一分類하는것이 도움이되는가에 對해서 몇가지 理由를 다음에 列擧해보겠다.

(1) 現在 우리나라에서 開架式으로 運用하고 있는 圖書館은 主로 學校圖書館이며 그外에는 大部分이 閉架式圖書館이다. 그러나 閉架式圖書館이라하더라도 漸次로 開架式的 長點을 받아들여 開架와 閉架의 中間的인 折衷運用을 꾀하고 있다. 即書庫內의 自由出入을 許容하므로서 直接 接架에 依한 圖書選擇의 便宜를 圖謀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活潑해질것으로 展望된다. 그例로서 大學圖書館을 들어본다면 現在 敎職員의 書庫自由出入은 勿論이요 大學院生까지도 許容하고있는 곳이있어 앞으로는 漸次로 普及될것이다. 뿐만아니라 參考圖書 定期刊行物 및 其他 必要한 圖書를 直接 閱覽室에 고집어내어 接架閱覽을 시키고있다. 이러한 諸境遇에 있어서 資料가 言語나 裝釘

에 拘碍됨이없이 다 같이 單一分類에 依하여 한곳에 集中되어 있다면 그얼마나 圖書利用이 便利할것인가? 萬一 그렇지 못한 境遇 直接 書庫에 들어가서 接架하여 圖書를 選擇할때 藏書가 많은 圖書館에서 新書는 一層 西書는 三層 古書는 六層에 있다고 假定한다며는 어떤 主題에 對하여 이들 冊을 다볼려고할때는 —히 찾아다니게됨으로 그얼마나 時間이 걸리고 힘이들것인가? 이것이 東西書를 莫論하고 單一分類法을 使用하여 한곳에 排列했다면 한곳만 가보면될 問題가 아닌가? 더욱이 이러한 일은 한두 사람이 겪는 苦楚가 아니라 여러사람이 每日 같이 되풀이하는 隘路라는것을 생각할때 더욱 그러하다.

(2) 徹底한 閉架式으로 直接 書庫出入을 못하는 境遇라도 東西書가 單一分類法으로 分類되어 있다면 現在 우리가 主用하고 있는 分類目錄이 亦是 單一體系로 組織되어 있음으로 한곳에서 보고저하는 主題에 對한 包括的인 檢索이 容易하여 그다지 時間을 浪費하지않고도 資料를 얻어볼수가 있다. 萬一 圖書의 言語別 或은 形態別로 各各 다른 分類法이 適用되었다면 不得已 分類目錄도 그와같이 分轉되어 있으므로 보고저하는 圖書를 檢索하기위해서는 이目錄을 —히 다 찾아보아야하니 보다도 더 많은 時間을 虛費하여야하며 번거롭기가 짝이 없다. 單一分類法을 使用하는 또하나의 利點은 分類記號가 하나로 統一되어 있기때문에 두개 또는 세개의 分類法을 使用한때 보다 頭腦가 煩雜하지않고 記憶이 容易하다.

(3) 圖書館員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A. 出納員의 圖書出納業務가 容易하

다. 아무리 藏書가 많다하더라도 同一한 部類에 屬하는 冊이 한 場所에 集中되어 있으므로 勞力의 消費를 적게하고 時間이 節約되어 出納業務가 迅速하고도 圓滑하다. 萬一 藏書가 많은 圖書館으로서 新書 古書 西書가 各各 다른 分類法으로 整理되어 相當한 階層사이를 두고 分散備置되어 있다면 위 (1)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또한 不便하기 짝이 없다. 뿐만아니라 參考係員이 參考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번거롭고 힘이 든다.

B. 目錄 主로 分類目錄을 二重的인 精力을 消費시키지 않고 經濟的으로 作成하여 組織할수가 있다. 오늘 날에 있어서의 分類目錄이란 過去와 같이 單純히 著者名 或은 書名目錄을 分類體系대로 排列하는 程度가 아니다 그機能과 範圍가 擴大되어 (一) 著者 書名의 字母順排列目錄 (二) 分類體系에 依해서 組織된 主題 等은 分類排列目錄(狹義) (三) 分類目錄의 主題 名索引(註 10)으로 構成되어 있다. 其中 (二)의 主題名索引은 分類目錄이 內包하고 있는 短點 即 分類表의 細部的인 理解가 困難하고 著者書名도 모르는 境遇 카드 檢索이 不能한것을 도와주는 이른바 主題名目錄의 長點을 適用시켜 十進分類法에 對한 相互索引의 役割을 해주고 있는것인데, 萬一 古書 新書西書를 各各 다른 分類法을 使用하여 整理한다면 連鎖索引(Chain index)을 비롯한 同義語索引이나가서는 作成해준 主題名索引에 對한 典據카드(Authority file) (註 11)에 이르기 까지 二重 三重으로 이를 作成하고 組織하는데 헛되어 精力을 浪費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한 經濟的으로도 큰 損失이 아닐수 없다.

다음으로 말할것은 東西書의 分類統一

을 하기위한 分類法의 採擇問題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 現在 使用하고 있는것을 圖協統計(註 12)에 依하면 大體로 K. D. C. 와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 의 二種을 들수가 있다. 이兩者가 다 滿足할만한것이 못되며 張一世氏가 그의 著書(註 13)에서 指摘하고 있는바와 같이 各各 短點이 있다. K. D. C. 는 解放後 試案으로 朴奉石先生께서 發表하신 後한 번도 修正增補치않아 現在 많은 缺陷이 있음을 是認한다. 그런데 多幸히도 이번 에 國立圖書館에서 大幅의인 修正增補에 이미 着手하고 進行中에 있으므로 이것이 完成된다며는 中小圖書館은 勿論이요 큰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새로 出發하는 圖書館에서는 東西書를 다함께 分類整理할수도 있을것으로 期待된다.

東洋部分을 展開使用하고 있는 D. D. C. 에 對해서는 自主性이 없고 元來 西洋諸國을 中心으로한 分類法인 關係로 韓國을 中心으로한 東洋部分을 展開使用하면 分類記號가 길어 複雜할뿐더러 D. D. C. 本來의 助記性이 喪失될 憂慮가 있고 또 體系가 變更되는 缺點을 免하기 어렵다. 그러나 反面에 西書를 많이 所藏하고 있는 大圖書館에서 東西書의 分類를 統一하기 위해서는 不得已 採用하지않으면안될 實情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分類法의 採擇問題는 圖書館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이兩者中에서 任意 選擇하면될것으로 본다.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大學圖書館과 特殊圖書館은 外國語圖書가 많고, 藏書量도 많으며(特殊圖書館은 專門分野의 藏書量이 많음) 閉架式書庫이면서도 接架制의 運用을 아울러 實施하고 있으므로 東西書의 分類統一이 絶對 要望되는 點으로 보거나 또 이미 大部分의 圖書館이 그와

같이 土產를 잡고 있는點을 考慮할때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 에 依해서 分類를 統一하는것이 좋겠고, 中小圖書館 및 中高等學校 以下の 圖書館은 外國語圖書가 別로 많지않고 藏書量도 적으며 特히 中中高等學校以下 圖書館은 大部分이 開架式인 點을 綜合考慮할때 K. D. C. 에 依한 分類統一이 좋다고 본다. 흔히 小圖書館이나 中高等學校圖書館에서 까지 D. D. C. 를 使用하려는 傾向을 認할수 있는데 이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된다. 위의 東洋部分을 展開한 D. D. C. 에서 短點을 指摘한바와 같이 韓國을 中心으로한 東洋部分이 粗略하여 이를 展開한다면 記號가 길어지고 또 大體가 細目에 該當되어 不便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구미어 使用하려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할 問題이다. 大體 分類는 目的 三單位程度만하면 그다지 支障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따라 K. D. C. 로서도 充分하다. 더욱이 K. D. C. 가 修訂增補中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分類法의 使用를 勸告하고 싶다.

다음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中小圖書館은 亦是 K. D. C. 로 分類를 統一하는것이 좋겠고, 다만 大圖書館으로서 이미 K. D. C. 로 東書 D. D. C. 로 西書의 分類土產를 確固히 잡고있는 곳에서는 大體로 徹底한 閉架式 運用으로 一般人的 書庫出入을 許容치않는 點으로 보아서 그대로 存藏시키는것이 無妨하다고 본다. 그 代身에 目錄을 잘 組織하고 效果의으로 利用되도록함이 必要하다.

五. 結 論

中國의 分類沿革이 證明해주듯이 古書 分類에 있어서 四部法은 時代의으로 뒤쳐진것으로 그다지 使用되고 있지않으며,

적어도 古書와 新書는 單一分類法에 依해서 整理가 되어야 하겠다. 이와같이 古書와 新書를 單一分類法으로 分類하는 것은 될 수 있는 限 內容國語 및 新舊圖書等에 拘碍되지 않고 모든 圖書를 한 分類體系에 따라 同一한 主題는 이를 한데 모으고 關聯된 主題는 이를 다음에 接近시켜서 讀者가 圖書利用을 便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한결 음더 나아가서 東西書 卽 모든 圖書館資料를 하나의 分類法을 使用하여 分類를 統一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讀者는 勿論이요 圖書館運用上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既成의 組織을 가진 圖書館에 對하여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緒言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아직 整理를 하지 않고 準備中에 있는 圖書館에 多少라도 도움이 되면 多幸으로 생각할 뿐이다.

註 1. 여기서는 東書만을 意味한다. 萬一 西書까지를 아울러 생각한다면 三個의 分類法을 使用하는 境遇가 있게 된다. (例: 古書는 四部法, 新書는 K.D.C. 西書는 D.D.C.를 使用하는 境遇)

註 2. U.S. Library of Congress, A descriptive Catalog of rare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Congress, omp. Wang Chung-min (Washington: 1957) V. 1—2.

註 3. Harvard 大學, “Harvard 大學漢和文庫分類表, 裘開明編, 圖書館研究, V, P. 522—528.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Harvard-

yenching Library (正式各: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of Harvard University)의 分類表를 高麗大學校圖書館이 所有하고 있다.

註 4. 金聖河, “하버드燕京學社圖書館” 도협월보, V. 1 No. 9 (1960, 12月號) P. 19.

註 5.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灣: 民國 46) P. 187—88.

註 6. 여기서도 東書만을 意味한다. 萬一 西書까지를 아울러 생각할 境遇 古書와 新書를 함께 K.D.C.로 分類하고 西書는 D.D.C.로 分類하였다면 두개의 分類法을 使用하는 셈이 된다.

註 7.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d ed.; Chicago: 1943) P. 32—33.

註 8. Margaret M. Herdman,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d ed.; Chicago: 1947) P. 3

註 9. Margaret Mann, 前掲書, P. 33.

註 10. 上掲書, P. 181—82.

이재철, 주제명목록의 연구 (서울: 1959) P. 5.

註 11. 라버트 버제스 편, 분류목록 (서울: 1960) P. 9—46.

註 12.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 (서울: 1960)

註 13. 張一世, 學校圖書館運營法 (서울: 1959), P. 41—59.

(筆者 東國大學校司書主任)